

정용진 “압도적 1등 전략 확산할 것”

스타필드마켓 죽전점서 현장경영

새해 첫 현장 행보 매출 1등 점포 방문
“유통 환경 혼란 속 ‘쇼핑 성지’ 책임감
더 많은 현장서 미래 성장 답 찾을 것”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6일 이마트 매출 1위 점포인 스타필드마켓 죽전점을 방문하며 2026년 새해 첫 현장경영에 나섰다.

앞서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을 ‘다시 성장하는 해’로 규정했던 정 회장은 이날 현장에서 “1등 고객이 먼저 찾는 1등 점포에서 비상(飛翔)의 한 해를 시작하겠다”며 성장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 회장은 평소 “가장 빠르고 바른 답은 고객이 있는 현장에 있다”는 철학을 강조해왔다. 새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매출 1위 점포를 찾은 것도,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해답을 현장에서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스타필드마켓 죽전점은 2024년 8월, 이마트 점포 중 최초로 ‘스타필드 DNA’를 접목한 미래형 마트 모델로 리뉴얼 오픈한 곳이다. 장보기 기능을 넘어 휴식과 체험, 커뮤니티 요소를 결합한 공간으로 재탄생한 이후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고, 지난해 이마트 전체 매출 1위 점포에 올랐다.

리뉴얼 이후 죽전점의 성과는 수치로도 입증되고 있다. 2025년 기준 매출은 전년 때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 6일 스타필드마켓 죽전점을 찾아 간편식 매장서 상품 설명을 듣고 있다. 신세계그룹 제공

비 28% 증가했고, 방문객 수는 22% 늘었다. 판매 면적을 줄이는 대신 휴식·체험 공간과 테너트를 대폭 확대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정 회장은 현장에서 “혼란스러운 유통 시장 환경 속에서 고객들이 일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쇼핑 성지’가 돼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스타필드마켓 죽전점에서 구현한 압도적 1등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은 퇴근 고객과 가족 단위 고객이 몰리는 오후 6시 무렵 이뤄졌다. 정 회장은 점포 상점 공간인 북그라운드를 시작으로 지하 1층 그로서리 매장과 지상 1·2층 테너트 공간을 차례로 둘러보며 고객 동선과 상품 구성,

가격 경쟁력 등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정 회장은 “스타필드마켓 죽전점은 높아진 1등 고객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전의 결과물”이라며 “두려움 없이 혁신을 실행해 성과를 만들어낸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성과는 현장의 고객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라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2026년 한 해 동안 더 많은 현장에서 미래 성장의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끝으로 “2026년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고객을 만나는 현장”이라며 “현장에서 다져진 전략을 통해 성장과 함께 주주가치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east@viva100.com

“업권·소비자 맞춤 예금보험체계 구축”

김성식 예보 사장 취임

선제적 위기 대응·예금보험제도 개편
금융시장 안정의 파수꾼 역할 강조

김성식(사진)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임기에 돌입했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선제적 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미래지향적 예금보험제도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금융시장 안정의 파수꾼’ 역할을 강조했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김성식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공사가 집중해야 할 3대 핵심과제로 △선제적 위기대응 역량 강화 △미래지향적 예금보험제도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꼽았다.

김 사장은 우선 “위기는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금융시장의 위기 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안전계정’ 도입 마무리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부실정리제도 정비, 대형금

회사화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의 실효성 제고,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정교한 발전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래지향적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환경 변화에 걸맞은 예금보험료를 체계 개선을 예고했다. 김 사장은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예보채상환기금의 운영 시한이 각각 2026년과 2027년 도래함에 따라 최적의 기금체계 전환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보유 자본 매각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춘 신종 금융상품의 보호 대책 편입 추진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강조했다. 업권별·소비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금보험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내실화도 지속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사장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과 함께 대한민국 금융 안정을 책임지는 핵심기관”이라며 “어려운 순간에도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한화 건설,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응급처치 교육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6일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상황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화상회의 앱 ZOOM을 통해 전 현장에도 중계됐다.

이날 교육은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미사용 시 심폐소생술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상황별 응급처치 교육은 추락, 골절, 절단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재해 유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실제 상을 가정해 응급처치를 직접 수행했으며, 이후 전문 강사의 피드백을 통해 올바른 대응 방법을 익혔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여부에 따라 나눠 진행됐다.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한 교육은 안내화면에 표시되는 단계별 지시에 맞춰 마네킹에 직접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자동심장충격기 없이 진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서는 기존에 사용한 성인상체



㈜한화 건설부문 현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응급처치 실습을 받고 있다. (좌)한화 건설부문 제공

모양의 마네킹을 활용해 가슴압박 실습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가슴압박의 정확도와 속도에 따라 즉각적인 피드백이 제공됐으며,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절한 압박 방법과 속도를 직접 체감하며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윤해 (좌)한화 건설부문 안전환경경영실장은 “동절기에는 감추위로 인해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각종 응급상황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응급상황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강호동 농협 회장 소통 행보 임직원 만나 “同心협력” 강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연초부터 계열사를 잇달아 방문하며 임직원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농협중앙회가 7일 밝혔다.

강 회장은 새해 첫 근무일인 지난 2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 근무 중인 임직원과 신년 인사를 했다. 또 다양한 직급과 연령의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일상적인 소통부터 농협의 역할과 미래 방향에 이르기까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농협의 사회·공익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 회장은 “임직원 간 소통은 조직의 신뢰와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2026년의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동심협력(同心協力)의 자세로 희망농업·행복농촌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기자 yji@viva100.com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과·팀장급) △법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제도개선지원과장 조성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 AI 인프라 지원팀장 민자영
◆문화체육관광부(과장급 전보) △정책포털과장 전은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하늘 △해외미디어협력과장 이규석
◆브이아이피자산운용 △그로스팀장 이사 조창현 △밸류팀장 이사 박성재 △경영기획팀장 이사 심민규
◆GC녹십자웰빙 △연구개발본부장 정시영
◆유유제약(임원 영입) △본부장(상무) 장홍석(유유헬스케어 전무 승진) △마케팅개발 영업본부 김경미(유유테이진메디케어 본부장(이사) 승진) △마케팅본부 홍태의
◆파이낸셜투데이 △편집국장 김지성
◆허프포스트코리아 △광고부장 백자우 △경제/씨저널부 차장 윤휘중 △정치사회문화부 차장 조장우



부고

▲남태희씨 별세, 남경옥·경호(GS건설 부사장)·영미씨 부친상, 명민주씨 장인상, 박운정·심준희씨 시부상 =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9일 오전 10시(02-2072-2010).
▲권혁철씨 별세, 이해자씨 남편상, 한수일(NH아문디자산운용 상무)씨 장인상 = 7일 오전 7시,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0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장지 용인 평온의 숲(031-787-1500).
▲양옥진씨 별세, 신재우씨 부인상, 신의경(한국이민정책학회 이사)·승호·병호씨 모친상, 박은숙·고민정씨 시모상 = 7일, 제주 제주시 훈길장례식장 301호, 발인 9일 오전 7시(064-744-1245).
▲임달호씨 별세, 임기태(팀쿠기 부대표,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부회장)씨 부친상, 노희정씨 시부상, 임우준씨 조부상 = 7일, 국립중앙의료원 305호, 발인 9일 오전 5시(02-3010-2000).

TV, 자동차, 반도체를 잇는 한국 경제의 핵심산업 K바이오
1,800조 세계시장 거머쥔 전략과 전술을 밝히다

바이오가 돌파구다

류성의 제약국부론

제약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분석과 전망, 비판과 제언까지 총망라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능가하며 글로벌시장을 위력파악할 K바이오기업 탄생 눈앞
- 단일 약으로 매출 1조 원, 글로벌 K바이오 신호탄 될 K블록버스터 신약 1호는 무엇?
- 셀트리온, 삼성바이로직스가 보여준 바이오 기업 경영의 길
- 게임도 실패하지 않는 제약-바이오 투자를 위한 제1 원칙은?

01 K바이오, 이제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라

셀트리온알테오엔이 보여준 K바이오 저력 | ‘바이오의 구름’ 노리는 서정진 마크로젠 회장 | 원천기술 확보한 바이오벤처의 야망 | 현대바이오사이언스가 보여준 K바이오의 미래 | 세계 최초로 계면활성제 없이 인체 조직 이식제 상용화에 성공한 도프메이저 제약사 최고 성장세, 휴온스 비결 | 김성진 메드팩토 대표가 세계 최초 혁신신약 확산하는 까닭 | 하늘에서 꿀 이룬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 AI 신약 개발은 제약산업의 게임체인저 | 바이오 CDMO 춘추전국시대, 주목받는 테고사이언스 | 원료약품 최강자 국전약품이 꺼내든 사업다각화 카드

02 K바이오, 이제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라

바이오 삼각지 관전법 | 바이오 ‘성장통’ | ‘계류’ 중국 바이오, K바이오 공략법 | 의대 정원 확대, K바이오에 절호 기회 | 세계 제약판 뒤론드는 ‘워고비’와 K바이오 | 기술어진 운동장과 200년 제약 서구 패권 | 이재용과 서정진의 엇갈린 행보 | 바이오에 국운을 걸어야 하는 까닭 | 블록버스터 확보가 제약강국 지름길 | ‘썬통’ 바이오 감별하기 | ‘필매’가 숙명인 게이미들의 바이오 주식투자 | 셀트리온과 삼성전자의 공통분모

03 K바이오, 이제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라

두 ‘우’ 그룹이 촉발한 K바이오 자각변동 | 블록버스터 클립 vs. 1조 클럽 | 바이오 구원투수로 나선 사모펀드 | K바이오, 글로벌 강자로 클 수밖에 없는 이유 | K바이오 ‘메가’로 나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 붓을 던진 대기업 바이오 진출, 성공 조건은? | 블록버스터 탄생, 전과 후 신약 개발 사활 건 윤웅성 일동제약 부회장의 전략은 | 한국판 모더나 탄생 가능성은

04 K바이오, 이제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라

잇단 바이오 1세대 퇴진의 교훈 | 공공의 적, 바이오 카르텔 | 국산 신약 역사별하는 식약처 | 홀터를 부추기는 나라 | 변죽만 울리는 바이오 정책 | 임상 조직과 K바이오 불신 | 바이오 교각살우(犄角殺牛) | 바이오 대폭락장의 주범들 | 국내 의약품 순통 전 중국과 일본 | 바이오에서 대기업이 죽 수는 까닭 | 제약강국 외치며 바이오 육치는 정부 | 가위 배 가르며 황금알 낳기 | 고공 행진 신통제약 주가가 준 교훈 | 회사 경영 우습게 아는 바이오 창업자들 | 타이레놀도 드러낸 의약품 유통의 민낯 | ‘난수표’ 바이오 사업 모델... 누굴 위한 것인가 | 진화하는 ‘썬통’ 바이오업체들 생존법 | 닥침 버블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열풍

05 K바이오, 이제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라

바이오 특허등록 빠른 게 농사 아니 | 투자 빙하기 어느 바이오벤처의 성공 전략 | ‘천수답’ 바이오가 살길 | ‘쪽박’ 차는 바이오 투자 비법 | 바이오 창업과 필부의 용기(匹夫之勇) | 바이오 기술수출 딜레마 | 본말전도 K바이오 육식 가리기 | 공공의 적 ‘제네락’을 위한 변명 | 빙하기 도래한 바이오, 돌파구는? | 바이오가 이재용 회장에게 주는 기회 | 테슬라가 국내 제약업계에 던지는 교훈 | 복제약 축소 없는 제약강국은 연강생식 | 전통 약 전성시대 종말... 기존 제약사들 생존 전략은

업계 CEO와 전문가,
전문 투자자 모두가 일독을 권하는 역작

★★★★★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 회장
★★★★★

“제약·바이오산업이 왜 미래 핵심산업으로 도약할 수밖에 없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밝혀냈을 뿐 아니라 제약·바이오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풀어야 할 주요 걸림돌이나 난제 등에 대해서까지 날카롭게 지적하는 저자의 안목이 놀라울 정도다.”



• 온라인 서점 및 전국 대형 서점에서 구매 가능